



물류·택배업계
“일률적 작업제한
생계 직격탄”
L1

metro®

Life

바이오시밀러
황금기
상용화 경쟁
L2



‘코팅갑옷’ 입은 토종 유산균 세계 56개국 장 케어 돕는다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셀바이오텍 ‘듀오락’

셀바이오텍이 한국인의 장에서 시작한 토종 미생물 연구가 ‘듀얼코팅’이라는 단단한 갑옷을 입고 전 세계 6대륙 56개국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는 글로벌 히트 브랜드 ‘듀오락’을 만들었다. 100% 한국형 균주에 대한 자부심과 비만부터 뇌 질환까지 아우르는 혁신으로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을 제시한다.

30여 년 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해외에서 건너온 외국산 유산균 제품들이 주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셀바이오텍의 생각은 달랐다. 발효 음식을 즐겨 먹는 한국인의 장내 환경은 서양인의 장과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인에게 한국인 식습관 속에서 적응해 온 유산균이 가장 잘 맞는다’는 아이디어로 셀바이오텍은 한국형 유산균을 발굴하는 연구개발을 시작했다. 5천 년 역사 동안 한국인의 장 속에 자리 잡은 우수 균주만을 엄선했고 여기에 균주의 기원과 고유 명칭을 뜻하는 ‘CBT(Cell Biotech) 유산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현재도 18명의 박사진을 포함해 총 49명의 미생물 연구진이 안전성과 기능성에 중점을 두며 독자 유산균을 발전시키고 있다.

한국인 식습관 맞는 한국형 유산균 개발 장 속 우수균주만 엄선한 ‘CBT 유산균’

56개국 진출... 지난해 수출실적 291억 13년간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수출 ‘1위’

유산균은 온도와 습도, 외부 환경 변화에 매우 예민한 생균(生菌) 특성상 해외 유통망을 개척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모험이자 기술적 진입장벽이었다. 하지만 셀바이오텍은 국내 시장을 흡수하고 곧바로 해외 무대로 눈을 돌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산실적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5년까지 대한민국 프로바이오틱스 전체 누적 수출액은 5385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셀바이오텍이 올린 누적 수출액은 무려 2688억원이다. 국내 전체 프로바이오틱스 수출의 약 50%에 해당하는 규모다. 실제로 셀바이오텍은 ‘13년 연속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수출 1위’라는 독주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성장세는 더욱 확연하다. 2013년 전체 수출액 186억원 중 139억원, 2014년 175억원 중 127억원을 기록했다. 시장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며 수출 기반을 다졌고 2020년대 들



생존력이 강한 유산균 ‘듀오락’ 제품군.

어서도 수출 실적은 끊이지 않았다. 2022년 227억원으로 200억원대를 넘긴 뒤 2023년과 2024년에는 나란히 259억원이라는 실적을 냈다. 지난해에는 전체 수출액 720억원 중 291억원을 올리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했다.

셀바이오텍이 구축한 글로벌 영토는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를 거쳐 최근 아프리카 대륙까지 다다랐다. 전 세계 6대륙 56개 국가에서 거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있다.

가장 비중이 높은 지역은 유럽으로 31개 국가에서 영향력을 키웠다. 덴마크, 독일,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헝가리, 불가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등에 진출해 있다. 유산균의 본고장이자 중주국으로 불리는 덴마크에서는 경쟁한 현지 브랜드들을 제치고 약국 시장점유율 1위에 이름을 올



지난 7월 경기 김포에 위치한 셀바이오텍 본사를 방문한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의 주요 의료진이 생산 시설을 견학하며 글로벌 유산균 시장에 대한 최신 지견을 나눴다.

리는 성과를 거뒀다.

셀바이오텍은 앞으로도 글로벌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네트워킹 전략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달에도 지난 2~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세계 최대 건강기능식품 박람회 ‘비타푸드 아시아’에서 해외 파트너십 활동을 활발히 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을 뚫고 ‘듀오락’이 히트 상품으로 브랜드 입지를 잡을 수 있었던 핵심 무기는 독자 개발한 특허 기술 ‘듀얼 코팅’이다.

유산균은 입을 통해 섭취되더라도 강한 위산과 담즙산이라는 장벽을 만나 사멸하기 쉽다.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균주라도 효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셀바이오텍은 살아있는 유산균을 단백질과 다당류로 겹겹이 이중 보호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인체적용시험 결과, 듀얼 코팅 유산균은 코팅되지 않은 일반 유



지난 2~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비타푸드 아시아 2026’ 현장에서 셀바이오텍은 ‘K유산균’으로 듀오락을 알렸다.

산균 대비장속 생존력이 최대 221배나 높은 것으로 입증됐다.

유통 과정에서의 온도 안정성 역시 독보적이다. 40℃ 고온에서 2주간 진행된 가속시험에서 듀얼코팅 유산균은 비코팅 유산균 대비 수천 배 높은 높은 생존율을 유지했다. 영하 70℃의 혹한부터 영상 40℃의 고온 다습한 기후까지 견뎌내는 이 강력한 내구성 덕분에, 영하의 러시아부터 폭염의 아프리카 대륙까지 세계 어디서나 변질 없는 최상의 품질로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세계적인 수준의 엄격한 품질 관리 체계도 해외 시장의 신뢰를 뒷받침한다. 유럽식품안전청(EFSA) 기준에 따라 모든 제품을 생산하며 글로벌 대표 인증을 획득했다. 나아가 자체 개발한 CBT 유산균 11종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최상위 안전원료 인정 제도인 ‘FDA GRAS’에 등재되어 최고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

독자개발 특허기술 ‘듀얼코팅’ 핵심무기 이중보호로 장내 생존력 최대 221배 높아

체지방 감소, 대장암 세포 사멸 기술 등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헬스케어 시장 공략

이와 함께 셀바이오텍은 듀오락 연구개발을 고도화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헬스케어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장내 미생물은 장은 물론 인체 전반의 장기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장-간-지방 축’을 조절하는 항비만 다이어트 유산균 연구다. 셀바이오텍 R&D센터와 세계김치연구소가 공동 수행하고 있는 김치 유래 균주 CBT-LP3와 신생아 유래 균주 CBT-BR3의 복합 배합은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기전을 갖췄다.

아울러 셀바이오텍은 대장암 신약 후보물질 ‘PP-P8’도 보유하고 있다. 대장암 세포를 사멸시키는 ‘P8’을 대량 생산하도록 형질전환한 것으로, 듀오락 특허 균주인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CBT-LR5’에서 유래한 항암 단백질 ‘P8’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다른 유산균에 도입했다.

셀바이오텍 관계자는 “연구개발 성과와 임상 데이터를 성장 기반으로 앞으로도 차별화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임시’ 모레노 축구대표팀 감독, 비자 발급...오는 14일 기자회견
▲최지만 어디로 갈까...2027 KBO 신인 드래프트 21일 개최
/사진 뉴스시스

▲스쿠벌 7%이닝 역투에 다저스, 시즌 최다 타이 6연승...오타니는 결장
▲박진형,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국제 피아노 마스터 콩쿠르 2위

▲‘금산 신안사 대광전’ 보물 지정...‘진주 남강 축석루’ 명승 예고
▲독자 62.5% “책 끝까지 읽는다”...구매량은 ‘골라 읽기’가 더 많아